

60세 이상 고령가구 사업소득 최대폭 감소

올 3분기 60만1천원...1년 전보다 15.3% 줄어 월평균 10만원 이상 감소는 2003년 이후 처음

은퇴 세대가 주로 속한 60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이 올해 들어 낙폭을 키우고 있다.

내수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베이비부머까지 가세한 과당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60만1천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만8천원(15.3%) 감소했다.

60세 이상 사업소득이 10만원 넘게 감소한 것은 가계동향 조사가 시작된 2003년 이후 처음이다. 감소를 기준으로도 최대 폭이다.

60세 이상 가구주에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 등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

60세 이상 가구주 전체 소득에서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연령대가

구주보다 더 높은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1·2분기 내리 감소한 60세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3분기에 감소 폭이 확대되면서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가장 낮은 18.3%까지 떨어졌다.

이는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19.5%)보다도 낮았다.

60세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 비중이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 비중보다 낮아진 것은 2007년 4분기 이후 약 11년 만에 처음이다.

다만 60세 이상 가구주의 근로소득(18.8%)과 이전소득(24.4%)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전체 소득(329만원)은

10.8% 늘어났다. 특히 이전소득은 역대 최대 폭으로 늘면서 처음으로 100만원을 넘어섰다.

60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 부진은 본격적으로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치킨·커피 전문점 등 상대적으로 진입이 쉬운 음식점 사업에 뛰어들면서 출혈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표자가 60세 이상인 사업체는 87만5천여개로 직전 1년간 5만2천개(6.3%)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사업체가 7만285개 늘어난 점에 비춰보면, 1년간 늘어난 사업체의 74%가 60세 이상 고령 대표자가 창업한 것이라는 뜻이다.

내수침체뿐만 아니라 온라인 소비 확산, 회식 문화 쇠퇴 등 사회문화적 요인도 음식점업에 몰린 고령 가구주의 사업소득 부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숙박·음식점업 생산도 지난해 10월 이후 1년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60세 이상 가구의 사업소득은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 가구원 모두 줄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세관, '관세 아카데미' 성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지원의 일환으로 마련한 관세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관세 아카데미는 광주지역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6일, 23일 총 3회에 걸쳐 조선대학교에서 실시했다.

관세사 자격증과 관세직 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강의를 시작으로 새내기 공무원으로부터 공무원시험 경험담 듣기, 공식생활 체험을 위한 무안공항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은 관세 아카데미가 새로운 사회로 출발하는데 마중물이 될 값진 기회였으며 관세공무원에 대한 관심을 보였다.

광주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 아카데미를 계기로 앞으로도 청년 일자리 정보제공 및 무역 인재 양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한전KDN, 빛가람 힐링 콘서트 개최

한전KDN은 지난 22일 분사 빛가람홀에서 지역주민과 직원들의 정서안정과 상호 공감을 통한 조직문화 조성 및 다양한 주제별 강연을 통한 창의적 사고력 배양을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를 열었다.

이번 콘서트는 임직원과 가족을 포함해 지역주민 및 에너지밸리 입주기업 재직자 등 45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 행사를 주최한 한전KDN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에너지ICT 전문 공공기관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다양한 사회가치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이바지해 오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한전KDN과 함께하는 빛가람 힐링 콘서트는 제2회째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명강사를 초빙해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푸빌라와 해피 크리스마스!

연말을 맞아 광주신세계 1층 문화공장에 대형 트리과 푸빌라 인형이 등장,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10월 항공여객 1천만명 돌파

무안공항 30.1% 증가

지난달 항공여객 실적이 해외여행객 증가와 중국노선 여객의 회복세에 힘입어 10월 기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항공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6.8% 증가한 1천6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10월 기준 항공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이 같은 실적은 해외여행객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저비용항공사(LC

C)들이 지속적으로 노선을 다양화하면서 공급을 늘리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선 여객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확대(20.2%), 징검다리 연휴해의 여행 수요 증가, 중국의 단체여행 일부 허용 등에 따라 전년 동월대비 12% 증가한 734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양주(-0.6%)를 제외한 중국(23%), 유럽(15.4%), 동남아(1.6%), 일본(8%) 등의 지역노선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였다.

중국노선은 148만명을 기록해 작년 대비 23% 증가했다.

항공사별로는 국적 대형항공사(FSC)가 전년 동월대비 6.4% 증가했고, 국적 저비용항공사(LCC)는 19.6% 상승했다. 국적사 분담률은 67.7%를 기록했다.

공항별로는 중국노선 여객 증가와 노선 다변화로 제주(70.5%), 청주(10.8%), 양양(107.8%), 무안(30.1%), 대구(19.9%) 등 전 공항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최환준기자

로또복권

〈제 834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6 8 18 35 42 43 / 보너스 3		
1등	1,690,693,671	6개 숫자 일치
2등	65,949,044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575,804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전남문진원,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성료

우수작품 12편 시상...저작권 인식확산 도모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오창렬, 이하 진흥원)은 '2018년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우수작품 총 12편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다양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침해예방 인식 확산을 위해 개최됐다. 지난 10월 초부터 이달 중순까지 영상·음악, 미술 총 2개 부문으로 나누어 공모했으며 총 9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영상·음악 부문에서 대상은 장세현(25)씨의 '당신 거기 있어주세요(영상·음악)'와 150만원(미술)이 수여됐다. 이외에도 최우수상은 ▲순희용 '같이 right, copyright(음악)' ▲박명은

'내가 지킨 양심은 좋은 콘텐츠가 되어 다시 돌아옵니다(포스터)', 우수상은 ▲김주영 '저작권이 뭐지?(음악)' ▲김준성 '저작권의 숲을 지켜주세요!(웹툰)' 등 4팀이, 장려상에는 ▲문지원 'Ready, Action!(음악)' ▲최원영 '눈과 입을 가립니다(포스터)' 등 4팀의 차지했다.

이들 10개 팀에는 진흥원장상과 상패, 부상으로 상금 총 650만원이 수여됐다. 오 원장은 "이번 공모전은 일반인들도 쉽게 저작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됐다"며 "저작권 보호와 침해예방 등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오비맥주·협력사 '동반성장 다짐대회'

오비맥주는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맥주문화체험관에서 중소 협력업체들과 '동반성장 다짐대회'를 열고 상생 발전 의지를 다졌다.

맥주 원·부자재 납품업체 등 협력업체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비맥주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경영전략과 구체적 실행 방안을 소개하고 10개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했다.

오비맥주는 협력업체들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동반성장을 위한 실천 방안을 더욱 내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최권범기자

한은 지역본부, 청소년 경제캠프 성황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부는 지난 21-22일 광주지역 특성화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캠프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송원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은행의 역할, 신용관리와 금융생활 등 경제교육과 진로탐색, 금융권 선배와의 대화 등 취업준비에 유익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경제캠프 이수자에게는 취업이나 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은 광주전남본부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했다.

한은 지역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넓혀갈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환준기자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왕좌의 게임〉(벤허)
제임스 포크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제임스 카비젤

PG-13

바울의 마지막 순간을 만나다!

전미 박스오피스 8위!
기독교 흥행 대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PAUL: APOSTLE OF CHRIST

전국 극장 절찬상영중

단체관람 문의 | 광주CBS 총무국 062. 376. 8500

[EVENT]

e-Book [생각하는 힘: 세계사 컬렉션 11-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역사적 관점에서 바울의 전도여행을 추적한다! 영화 <바울> 관람 시, [바울: 크리스티교를 세계화하다] e-Book 90일만 무료대여! *자세한 사항은 CBS사내미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하세요.